

장애에 대한 이분법적 시선과 담론의 극복

이동희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동서비교철학 전공
dhrhie@aks.ac.kr

- I. 머리말
- II. 장애의 정의와 사회적 담론
- III. 장애에 대한 역사적·사회적 담론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
- IV. 장애와 비장애의 이분법과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권리 박탈
- V. 『장자』에 나타난 장애인의 모습
- VI. 장애와 비장애의 차별과 배제의 인식론을 넘어서
- VII. 맺음말

I. 머리말

장애의 사회적 수용은 우리 사회가 미래 발전적인 시민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¹⁾ 최근 인권 영화제가 개최되고, 한국 장애인 인권상 제정 등이 시행되며,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관심은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 등의 문제를 의식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법이 1981년에 제정되었고,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 및 차별 사례는 다양한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영화 <도가니>의 실제 사건인 광주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사건일 것이다. 이와 같은 사건은 광주 인화학교뿐만 아니라 전국 특수학교 여러 곳에서도 나타났다.²⁾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인들도 성폭력을 당한 사례가 많다.³⁾

우리 사회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놓았지만, 실제로 장애인들은 보장된 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인권 문제 이외에도 교육·고용·의료·보험·결혼 등 사회 거의 전 부문에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차별을 당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2005년 장애인 실태 조사”는 장애인들이 학교, 사회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차별당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또한 장차법 제정 이후 차별에 대한 진정사건

1) 사실 장애의 사회적 수용이라는 용어에는 장애인을 사회적 주체가 아니라 타자로 보는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아직까지 장애가 사회적 배제와 차별의 대상이 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장애인들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인식 전환을 요구한다는 의미에서 현재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 교육과학기술부가 ‘도가니’ 사건 이후 최근 전국 특수학교 155곳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1건의 인권침해 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기숙사가 설치된 특수학교 41곳에서는 10건, 나머지 특수학교에서는 1건이 적발되었다. 특히 기숙사 설치 특수학교에서 적발된 인권침해 사례 10건 가운데는 지적장애 학생에 대한 교사의 성추행 의심 사례 2건이 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11년 12월 7일자)

3) 한 예로 제주판 도가니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제주지역 모 아파트에 사는 지적장애(2급) 여성을 2002년 4월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 여성은 성폭행으로 임신해 현재까지 자녀를 키우고 있다. 그리고 이 성폭력을 행한 사람들 중에는 제주도 내 모 장애인협회 부회장까지 포함되어 충격을 주었다.

접수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도 그러한 것을 뒷받침해준다. 장차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인 차별사건 진정은 256건에 그쳤으나, 장차법이 시행된 2008년 640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고 2012년에는 1,339건으로 늘어났다. 차별사건 접수가 늘어난 것은 장차법 제정 이후 장애인의 인권의식이 높아진 원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직도 차별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2012년 인권침해 사례를 발표했지만, 현재 장애인 인권단체들로부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러 인권침해 사례를 볼 때, 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동등한 사회적 평등과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장애인이 '시민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제대로 된 시민권을 보장받지 못하며 차별과 배제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왜 이러한 인권침해와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이 그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문제를 장애 그 자체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비장애인들의 사회적 인식과 연결시켜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라는 문제는 장애 그 자체에 기인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장애 외부에 원인을 둔 사회적 인식에 기인한다.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라는 문제가 사회적 인식의 문제라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과 사회적 인식 형성에 영향을 주는 담론이 가장 중요한 원인일 수 있다. 장애인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 제도 및 시설 개선과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장애로 인한 차별과 배제를 당연시하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장애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에 대한 차별적·사회적 시선과 이와 관련한 사회 담론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은 노라 엘렌 그로스(Nora Ellen Groce)가 말한 것처럼 '사회적 가공구조물(a social construct)'일 수 있다. 손상(impairment)이 있는 사람들을 장애인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사회이

다.⁴⁾ 이런 결과를 낳은 배경에는 다수와 소수자, 정상인과 비정상인, 완전과 불완전이라고 하는 장애에 대한 역사적·사회적으로 뿌리 깊은 선입견과 편견이 자리 잡고 있다. 장애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그에 기반한 사회적 담론은 장애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장애에 대한 그릇된 사회적 인식을 계속해서 재생산해낸다.

현재 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과 관련한 담론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⁵⁾ 첫째, 장애를 배려 및 후견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다. 이것은 장애인을 배려 및 후견의 대상으로 한정하여 은연중에 그들이 주체적인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시각을 형성해왔다. 장애의 사회적 보호관리라는 이러한 시각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시민권의 일원으로 사회적 주체로서 수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객체로 분리시켜 주류사회로부터의 배제와 은폐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둘째, 장애 문제를 순전히 개인의 능력과 연관시켜 보는 시각이다. 이것은 ‘헬렌 켈러’ 등 개인의 초인적인 능력을 통해 장애를 극복한 영웅담과 연관되어 있고, 장애인들도 그러한 능력을 통해 충분히 정상적 사회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에 대한 시각은 장애 문제를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능력 문제’로 축소시켜 보는 시각이다. 셋째, 장애인이 손상된 신체로 인해 다른 초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맹인의 경우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촉각이 뛰어나게 발달되어 손상된 능력을 보충할 수 있는 것처럼 왜곡되게 묘사하는 경우이다.

이처럼 장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과 담론은 알게 모르게 장애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을 심화하고 있다. 장애에 대해 고착된 시선과

4) “장애(disability)는 사회의 완전한 참여에서 불필요하게 고립되고 배제됨으로써 우리의 신체적 손상에 덧붙여 부과되는 것이다. 즉, 장애인은 사회 내에서 억압받는 집단인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손상과 장애라고 불리는 사회적 상태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손상을 사지의 일부나 전부가 부재한 것, 또는 사지, 기관, 몸의 작동에 불완전함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장애는 신체적 손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정의한다. 그리고 장애는 신체적 손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거의 또는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을 사회활동의 주류적 참여로부터 배제시키는 당대의 사회조직에 의한 불이익이나 활동의 제한을 말한다”. 김도현, 『장애학 함께 읽기』(그린비, 2009), 52쪽.

5) 김도현은 이와 관련하여 동정, 봉사, 극복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장애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세 가지 시각을 정리한 적이 있다. 김도현,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메이데이, 2007), 27쪽.

담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차별과 배제라고 하는 장애에 대한 이분법적 시선이 형성된 역사적·문화적 과정을 추적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차별과 배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담론 형성이 필요하다.

II. 장애의 정의와 사회적 담론

우선 장애의 정의와 그와 관련한 사회적 담론에 대해 살펴보자. 그동안 장애에 대한 사회적 담론은 ‘차별’과 ‘배제’로부터 ‘사회적 통합’으로 초점이 맞추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것은 1975년 UN의 ‘장애인권리선언’과 맥을 같이한다. UN의 ‘장애인권리선언’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UN의 ‘장애인권리선언’은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사회적 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는 장애 분류를 좀 더 세분화하여 장애를 사회적 문제로 다룬다. 세계보건기구는 장애를 3개의 차원으로 분류한다. 제1차 장애는 impairment로 신체의 생리학적 결손 내지 손상이다. 제2차 장애는 disability로 제1차 장애(impairment)가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심리적 문제가 직·간접적으로 발생하여 인간적 능력(주체적 행동 개념)이 약화 또는 손실된 상태이다. 제3차 장애는 handicap으로 제1차 장애와 제2차 장애가 통합된 형태에 다시 사회·환경적 장애(물리적 장애, 문화적 장애, 사회·심리적 장애)가 통합된 형태로 사회적 불리이다. 즉, 모든 장애요인이 중층적으로 통합되어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불리한 입장에 처한 상태이다.⁶⁾ 그러나 통합에 기반한 장애에 대한 사회적 담론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비판도 제기된다.

앞서 언급한 WHO의 장애에 대한 정의는 ‘평등’을 지향해온 서구의

6) 이철수 외, 『사회복지학사전』(Blue Fish, 2009) 참조.

사회적 담론을 반영한다. 장애에 대한 서구적 담론의 기본적인 주제는 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평등을 같거나 유사한 것으로 이해한다. 장애 문제를 평등과 사회 통합의 차원에서 다룸으로써 마치 장애에 대한 차별을 종식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장애의 고유한 문제를 은폐하고, 오히려 장애를 가진 자들을 평등하게 대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⁷⁾ 이런 지적을 하는 대표적 학자는 스티케이다. 스티케는 장애로 인한 핸디캡을 부정하려 하지만, 모두가 동일한 척 가장하는 것이 장애를 가진 자들을 평등하게 만들지는 못한다고 지적한다.⁸⁾ 사실상 이는 차이를 지니는 존재를 일반적이고 익숙한 존재 속에 가두어버리는 일종의 유폐로 간주될 수 있다. 스티케의 주장은 장애에 대한 근대 서구의 담론과 완전히 상반된다. 재활은 개별적 노력과 사회적 보정을 통해 유사한 사람들의 사회로 통합되는 것을, 그리고 차이를 확인하고도 마치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체하는 것에 대한 무언의 합의를 강조한다. 스티케는 이것을 '마치 ~인 것처럼의 문화'로 정의했다. 이 문화는 장애가 갖는 차이와 고유성에 대해 눈을 감게 만들어버린다. 스티케는 차이에 대한 애호가 인간적인 사회적 삶으로 이어지며, 반대로 유사함에 대한 열정은 억압과 거부를 낳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스티케의 지적처럼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언급되는 장애의 사회적 담론은 장애의 문제를 은폐하며, 그것은 또 다른 억압과 거부를 낳을 수 있다.

III. 장애에 대한 역사적·사회적 담론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고대 그리스 로마와 기독교 문명은 서구 유럽의 문명의 원천이자 출발점이었다. 그러나 장애와 관련해서 볼 때 고대 그리스와 로마, 기독교 문명은 야만에 가까웠다. 고중세 시대 서구의 장애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플라톤 이래로 '완전'을 추구하는 그들의 인식과 그에 기초한 사회적 담론과 관련이 있다. '완전'에 대한 인식은 반대로 '비완전'에 대한 인식을

7) 수잔 레이놀즈 휘테·베네딕테 잉스타 저, 김도현 역, 『우리가 이는 장애는 없다』(그린비, 2011), 26쪽.

8) Henri-Jacques Stiker, *Corps infirmes et société*, p. 149.

강화시켜놓았다. 장애와 비장애, 완전과 불완전, 정상과 비정상의 대립적인 인식이 그것이다. 이 사회적·차별적 인식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을 낳고, 또한 그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박탈되는 것을 정당화하거나 은폐해왔다. 이러한 점은 근대에 들어서 장애인에 대한 '인도주의적 처리'가 강조되던 시기에도 더욱 강화된다. 그 시기에 장애인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취급'은 장애자를 사회로부터 분리해 수용소에 가두어 치료하거나, 따로 모아 교육을 시키는 것처럼 사회로부터 배제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 점은 이미 푸코가 『광기의 역사』에서 정신병동의 역사를 다루면서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수용소 같은 시설에 갇혀 생활할 때, 어떻게 권리가 쉽게 박탈되는가를 보여준 바 있다.

사회로부터 장애의 격리와 배제는 서구의 영향을 받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에 대한 인도주의적 취급은 맹아, 농아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그 교육을 통해 사회통합이라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영화 〈도가니〉에서 볼 수 있듯,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수용소 같은 시설에 갇혀 생활할 때, 다시 말해 사회에서 배제될 때 그 권리는 쉽게 박탈될 위험에 처한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에 대한 사회적 선입견과 편견에 기초한 시선과 의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고정되어왔는지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1. 장애에 대한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와 플라톤의 철학 담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장애인들이 초인적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리스의 맹인 예언자 테이레스시아스이다. 헤시오도스에 따르면 그는 인간 7대(代)를 살았을 만큼 장수를 했으며, 미래를 예언하는 초능력이 있었다고 한다. 미래를 볼 수 있어 점을 치거나 예언을 할 수 있는 역할로 맹인이 등장하는 경우는 테이레스시아스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도 많이 발견된다. 우리나라 역시 예언과 관련한 시각 장애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한다.⁹⁾ 실제로 이런 예언

9) 정창권, 『역사 속 장애인은 어떻게 살았을까』(글항아리, 2011), 183-190쪽. 정창권은 우리 역사 속 장애인의 생활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장기간의 문헌연구를 통해,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맹인들이 점복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덕분에 시각장애인들이 점복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맹인이 예언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은 장애인들이 '손상'된 어떤 것을 대신해 다른 쪽을 더욱 특출나게 발전시켰거나 또는 발전했을 거라는 사고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담론은 장애인을 남다른 존재로 바라보게 하는 왜곡된 인식에 기여한다. 이러한 경우, 맹인이나 농인이 남다른 능력을 지닌 존재로 인식되어, 사회적 배제나 차별을 상대적으로 덜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쪽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손상'이 있는 대신 그것을 뛰어넘는 다른 능력을 지니지 못한 장애인들은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장애'는 전반적으로 배제해야 할 것으로 취급되었다. 그리스인들이 시민의 권리와 개인의 존엄성을 옹호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리스 남자들에게만 해당되고, 여자와 외부인들, 장애인들은 열등한 존재로 간주되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파이스토스는 장애를 가진 신으로 태어났다.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헤파이스토스를 제우스와 헤라가 올림푸스 산에서 던져버린 이야기는 유명하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 문화가 반영된 것이다. 그리스 당시에는 병들거나 허약한 어린아이를 들판으로 내다버리는 유아살해(infanticide)가 만연했다. 스파르타와 같은 도시 국가에서는 국가감시관이 있어서 병약하게 보이거나 장애증상이 있는 아이는 영아살해계곡에 던져버렸다.

스파르타의 아버지에게는 아기를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가 없었다. 아버지는 먼저 레스케라고 불리는 장소로 아기를 데리고 가야만 했다. 그리고 아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부족의 연장자들에게 판정을 얻어야만 했다. 원로들은 아이를 잘 관찰한 다음, 튼튼하다고 생각하면 기르라고 명령하고, 아이의 양육을 위해서 9,000조각의 땅 중에서 한 뭉치를 배당해주었다. 하지만 아이가 연약하고 몸이 성치 않을 경우에는 아포세테라고 불리는 곳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다. 이곳은 타이게토스 산 아래에 있는 커다란 바위틈이었다. 허약한 아이를 기른다는 것은 아기를 위해서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나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¹⁰⁾

이처럼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잔인할

사회적으로 차별하고 배제하는 일이 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한다.

10) 플라투르크 저, 김병철 역, 『플라투르크 영웅전』(범우사, 1999), 149쪽.

정도였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이러한 차별에서는 그리스인들이나 로마인들의 완전한 육체에 대한 이상이 작용하고 있다.

그리스인들은 육체적·지적 건강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다. 따라서 결함 있는 사람은 그 누구든 설 자리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교육과 운동 경기에 참여하기 어려운 정도로 결함이 있는 어린아이를 죽여 없애는 것은 당연했던 것이다.¹¹⁾

그리스 문화를 흡수하였던 로마인들 역시 ‘병든’ 혹은 ‘악한’ 아이들을 티베르 강에 버리는 유아살해를 열광적으로 지지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장애인들은 가혹하게 다루었다.¹²⁾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차별적 인식을 더욱 강화시켜준 것은 ‘완전’과 ‘이상’에 대한 강박적 추구 때문이었다. 그리스 철학자들 중에서 가장 완벽한 이상과 원형을 추구한 철학자는 플라톤이었다. 플라톤이 주장한 완벽한 이상과 원형의 존재는 이데아이이다. 이 완벽한 이상과 원형의 철학으로 볼 때 장애는 그 대척점의 자리를 얻는다. 플라톤의 『국가』에는 영아살해에 대한 동조는 나오지 않지만, 플라톤 역시 불구를 가진 장애 아이를 사회에서 은폐 내지 격리하는 것에 동조하고 있다.

반면에 열등한 부모의 자식들은, 그리고 다른 부류의 사람들의 자식들로서 불구 상태로 태어난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듯, 밝힐 수 없는 은밀한 곳에 숨겨둘 걸세.¹³⁾

플라톤의 『국가』에는 철인정치와 이상적 국가를 위해 우생학적 입장에서 열등아를 낳지 못하게끔 인위적으로 조절해야 하며, 낳더라도 양육을 포기해야 한다는 언급도 등장한다.

이미 동의한 것들에서 이런 결론이 나오네, 최선의 남자들은 최선의 여자들과 가능한 한 자주 성적 관계를 가져야 하지만, 제일 변변찮은 남자들은 제일 변변찮은 여자들과 그 반대로 관계를 가져야 하고, 앞의 경우의 자식들은 양육되어야 할 것이로되, 뒤의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네.¹⁴⁾

11) 폴린 반즈 저, 윤삼호 역, 「역압의 유산: 서구 문화에서 장애의 역사」, 『장애학 : 과거·현재·미래』(대구장애인연맹, 2006), 24쪽.

12) 위의 책, 25-26쪽.

13) 플라톤 저, 박종현 역, 『국가』(서광사, 1997), 460c

장애에 대한 플라톤의 생각은 당시 그리스 문화를 반영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의 인식론에 의해서도 정당화된다. 플라톤은 가장 완전한 본질이자 원형으로 이데아를 들고 있다. 이데아에 가장 가까운 것이 보다 완벽하다면, 이데아에서 떨어진 것은 완벽하지 않고, 그만큼 가치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플라톤의 ‘선분의 비유’는 감각 대상들인 가시적(可視的) 영역으로부터 지성에 의해 알 수 있는 가시적(可知的) 영역으로 인식의 정도가 높아진다. 가시적 영역에서 최고 인식은 지성에 의한 앎(anoesis)이며, 다음 단계는 추론적 사고(dianoia)이다. 그리고 가시적 영역에서는 실물들을 실제로 보는 믿음, 확신(pistis)이며, 그 아래에는 그러한 실물들의 그림자를 감각하는 상상, 집착(eikasia)이다. 이러한 플라톤의 인식 단계는 ‘동굴의 비유’에서 또 한 번 반복된다. 동굴의 비유에서도 동굴 안에서 물체의 그림자를 보는 가시적인 영역으로부터 동굴 밖에서 최종적으로 보게 되는 태양에 이르는 인식의 위계적 단계가 설정된다. 플라톤은 태양을 좋음의 이데아와 동일시한다. 좋음의 이데아는 모든 정의롭고 아름다운(홀륭한) 것의 원인이고, 가시적 영역에서는 빛과 해를 낳고, 가시적 영역에서는 진리와 지성을 제공하는 주인이다. 그래서 플라톤은 국가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자는 이 좋음의 이데아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식할 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그리고 각고 끝에 보게 되는 것이 좋음의 이데아이네, 그러나 이를 본 다음에는, 이것이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옳고 아름다운(홀륭한) 것의 원인이라고, 또한 ‘가시적 영역’에 있어서는 빛과 이 빛의 주인을 낳고, ‘지성에 의해서 알 수 있는 영역’에서도 스스로 주인으로서 진리와 지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또 장차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슬기롭게 행하고자 하는 자는 이 이데아를 보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려야만 하네.¹⁵⁾

『국가』에서 플라톤은 모든 것에 빛을 제공하는 ‘ 좋음의 이데아’를 본 사람이 통치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¹⁶⁾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시된다. 이렇듯 완전한 원형인 이데아를 두고 모든 사물은 위계질서적으로 계급화된다. 이러한 점은 완전한 ‘일자로부터의 유출설’을 주장하는 신플라톤주의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일자에 가까운 것은 더욱 완전한 존재이지만, 멀어질수록 불완전한 존재라 할 수 있다. 일자에서 처음 유출된 것은 정신이며, 가장 낮은 단계는 영혼을 갖지 않는 물질이다. 유출설을 보면, 일자에 가까울수록 완전하고, 멀수록 불완전하다는 것을 금세 유추해볼 수 있다.

14) 위의 책, 459d.

15) 위의 책, 517b-c.

16) 위의 책, 540b.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장애나 손상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완전'을 추구하는 플라톤의 철학은 매우 억압적이고 수직적이다. 들뢰즈는 이런 점에서 플라톤의 철학이 매우 지배적이고 억압적이라 비판한다. 『차이와 반복』에서 그는 플라톤주의의 진복이 현대철학의 과제라고 하면서 플라톤주의를 문제 삼는다. 여기서 들뢰즈가 말하는 플라톤주의란 무엇인가? 그가 주장하는 플라톤주의는 “일자, 유비, 유사성 심지어 부정성의 역량에 대한 차이의 종속을 대변”¹⁷⁾하는 것이다. 그리고 “차이를 그 자체로 사유하지” 않으며, 그 대신 “차이를 이미 어떤 근거에 관련짓고 같음의 사태에 종속”¹⁸⁾시키는 것이다. 플라톤주의는 수많은 개별자의 원형인 이데아를 주장한다. 예를 들어 현실에 존재하는 의자는 그 어느 것도 똑같을 수 없다. 아무리 똑같은 공장에서 나온 의자라 할지라도 엄밀하게 말해 결코 같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이렇게 수많은 차이가 나는 의자를 ‘의자’라는 하나의 보편적 개념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은 모든 의자에 공통적인 이데아가 있기 때문이다. 플라톤주의에 따르면, 가장 원형적이고 모범적인 의자, 즉 이데아로서의 의자가 있으며, 현실의 의자들은 그 이데아의 원형을 분유(分有)받고 있다. 플라톤의 이런 이데아론에 따르면 우리는 손쉽게 우열을 가릴 수 있다. 현실의 이데아들 중 이데아의 성격을 더 많이 받은 것은 ‘좀 더 우월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좀 더 열등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이데아의 ‘원형’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개별자에게 수직적 위계질서를 부여할 수 있다.¹⁹⁾

장애는 플라톤의 수직적 위계질서의 철학에서 불완전한 것으로 낮은 자리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 들뢰즈가 지적한 것처럼, 원형인 이데아로부터 내려가는 수직적 위계질서와 우열을 가리는 플라톤의 철학에서는 ‘수평적 차이’를 허용하지 않는다.²⁰⁾ ‘수평적 차이’는 다양성을 창출해내지

17) 들뢰즈 저, 김상환 역, 『차이와 반복』(민음사, 2004), 150쪽.

18) 위의 책, 162쪽.

19) 이동희,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철학이야기』 근현대편(휴머니스트, 2011), 413쪽.

20) 들뢰즈는 모든 개별자에게 수직적 위계질서를 부여하는 이데아의 원형은 없으며, 개별자들 사이에는 오직 수평적인 ‘차이’만 있다고 주장한다. 이데아적 원형이 없으면 우열이나 수직적 위계질서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불완전한 것에서 원형에 가까운 것으로 이르는 ‘변증법적 발전’도 있을 수 없다. 그는 수평적 차이가 창출해낸 다양성만 계속 되풀이된다는 반복의 사상을 통해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헤겔의 변증법을 제거한다. 위의 책, 414쪽.

만 그것의 우열을 가리지 않는다. 플라톤의 철학 구조 속에서는 장애를 다양성의 하나로, 그리고 장애를 수평적 차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지는 발생하지 않는다.

2. 장애에 대한 기독교 문명권의 담론

기독교 문명이 지배하는 유럽의 중세 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담론 역시 '완전'과 연결되는 '죄'라는 인식이 지배한다. '죄'라는 개념은 신이 창조한 원형에 대한 '손상'과 '흠결'로 이해된다. 구약성서에서 신약성서로 이어지는 장애에 대한 담론은 '죄'와 연관되어 있다. 사실 예수는 사회에서 소외받고 가난한 자들, 특히 소경이나 장애인을 가까이했다. 중세 기독교 교회에서는 이러한 예수의 태도를 물려받았지만 한계가 있었다. 장애인들을 자신들의 종교심을 내세우기 위한 수단인 '자선의 대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 콜린 반즈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초기 기독교 때는 핍박받는 자들 – 주로, '노예와 여자들' – 의 종교였기에, 자선은 선교와 존립에 꼭 필요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장애인을 자선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그들의 개성과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빼앗아 갔다. 그 결과,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 – 주로 성직자들, 저명인사들, 선량한 사람들 – 의 공공연한 감성과 자비심을 발휘하기 위한 완벽한 수단이 되었다.²¹⁾

이처럼 '장애'를 '자선의 대상'으로 삼기는 했지만, '장애'를 죄와 연결시켜 보는 기독교의 근본적 담론은 변하지 않았다. 신약성서에서 예수도 장애를 죄와 연결시키고 있다. 한 예로 마태복음에서 예수는 중풍에 걸린 한 남자에게 죄가 사하여졌다고 선언하자, 그 남자는 치유된다(마태복음 9-2). 이것은 '장애'를 죄와 연관시켜 보는 구약성서의 전통과 연관을 갖는 것이다. 욥이 병에 걸렸을 때 그를 찾아온 세 친구는 한결같이 욥의 고난을 신의 징벌로 간주하려 든다. 레위기에는 이런 언급도 나온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의 후손대대로 몸이 성하지 않은 사람은 그의 하느님께 양식을 바치러 가까이 나오지 못한다. 소경이든 지 절름발이이든지 얼굴이 일그러졌든지 사지가 제대로 생기지 않았든지 하여 몸이

21) 콜린 반즈 저, 윤삼호 역, 앞의 책, 27쪽.

성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가까이 나오지 못한다. 다리가 부러졌거나 팔이 부러진 사람, 꼽추, 난쟁이, 눈에 백태 낀 자, 움쟁이, 종기가 많이 난 사람, 고자는 성소에 가까이 나오지 못한다.(성서, 레위기 21, 16-20)

이처럼 기독교는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장애인들을 죄와 연결시켜 보았다. 장애를 죄와 연결시켜 보려는 것은, 기독교가 죄 사함과 평등한 내세를 보장하고 악마와 그 영향이 가져다줄 공포를 선전하고 주입시킴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고 유지하려 하였기 때문이다.²²⁾ 실제로 6세기 말 기독교를 영국 본토에 전파한 사람으로 전해지는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장애나 손상은 '아담의 원죄와 다른 죄에 대한 벌'이라고 주장했다.²³⁾ 장애인은 사탄의 존재와 힘을 보여주는 살아 있는 증거였다. 따라서 가시적 손상이 있는 어린이는 체인질링(changelings) - 악마가 인간의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고 대신 남겨놓은 못생긴 아이 - 으로 간주되었다. 1487년에 출간된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은 어머니가 사악한 요술과 마법에 걸려 그런 자식을 낳았다고 선언하였다. 종교개혁의 지도자 마틴 루터는 장애가 있는 한 어린이에게서 악마를 보았으며, 그 아이를 죽이자고까지 했다.²⁴⁾ 장애를 이렇게 죄와 연관시켜 보지 않으면, 그것을 조롱과 우스개의 대상으로 삼았다.²⁵⁾

3. 장애에 대한 근대 서구의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장애'를 완전성과 관련하여 종교적 죄와 연관시켜 보는 생각은 근대에 들어서면서 다른 개념으로 대체된다. 그것은 또 다른 방식의 '완전'인 '이성'이었다. '이성'은 계몽주의 시대의 이상이였다. '이성'이 목표로 하는 것은 '인간의 사회적 완전성'이다. 칸트는 「계몽주의란 무엇인가?」라는

22) 위의 책, 29쪽.

23) 위의 책, 29쪽.

24) 위의 책, 30쪽.

25) "고대 사회에서처럼, 중세에서도 장애인은 오락과 조롱거리의 주요 대상이었다. 영국의 튜더와 스튜어트 왕조 시대 소화집(joke book)에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다. 외국인·여자·성직자 같은 '인기 있는' 우스갯소리의 주요 생산자들에게, 백치와 광기에서부터 당뇨병과 호흡곤란까지 모든 손상이 좋은 소재가 되었다. 육체적으로 정상이지 않은 어린이와 어른은 마을 축제 때 구경거리로 전시되었고, [영국 런던의 유명한 정신병원] 방문이 큰 오락거리였으며, 부자들 사이에는 '백치들'을 노리갯감으로 데리고 있는 것이 크게 유행하였다." 위의 책, 30쪽 참조.

유명한 논문에서 이성을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데 계몽의 의의를 두고 있다.

계몽이란 우리가 마땅히 스스로 책임져야 할 미성년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미성년 상태란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는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 미성년 상태의 책임을 마땅히 스스로 져야 하는 것은, 이 미성년의 원인이 지성의 결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도 지성을 사용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의 결핍에 있을 경우이다.²⁶⁾

또한 칸트는 그의 도덕철학을 통해 인간은 '이성'에 기초한 윤리적 행위를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간답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칸트의 주장에 의하면, '이성'에 반대되는 개념은 '비인간적'인 것으로 사회에서 배제되고, 지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성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지도가 필요한 '미성년'의 상태로 규정된다. 이 점에서 이성적 판단이 어려운 지적 장애인들은 온전한 인간으로 대우받기가 어려워진다.

또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벤담의 공리주의도 사회 공학적으로 볼 때, 이성적 합리적 사고를 대변한다. 벤담의 공리주의는 '장애'의 문제를 사회적 유용성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는 "유용성의 원리에 부합하는 행위를 마땅히 해야 할 행위 또는 적어도 해도 좋은 행위"²⁷⁾라고 주장한다. 행위가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의 실제적 행복을 증진시킨다면 그것은 유용한 것이며 윤리적인 것이다. 그렇지 못할 때 그것은 비윤리적 행위가 된다. 이런 벤담의 생각은 현대 서구 역사에서 장애의 문제를 경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그러나 벤담의 공리주의는 다수의 이해관심을 실현하기 위해 소수의 이해관심을 침해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최대 다수'에 포함되지 않는 소수자들을 희생시키는 다수 집단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다.

제러미 벤담은 자신의 철학관이었던 공리주의 원칙에 따라 원형 교도

26) Immanuel Kant, 1784, "Beantwortung der Frage: Was ist Aufklärung?," *Berlinische Monatsschrift*, 1784, H. 12, pp. 481-494.

27) J. Bentham,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London; The Athlone Press, 1970a) 참조.

소, 파놉티콘도 설계했다. 파놉티콘은 벤담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람들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사람들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는 자신이 파놉티콘을 설계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만일 다수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들을 에워쌀 수 있는, 그들의 행동과 [인적] 관계, 생활환경 전체를 확인하고 그 어느 것도 우리의 감시에서 벗어나거나 의도에 어긋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이것은 국가가 여러 주요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유용하고 효력 있는 도구임에 틀림없다.²⁸⁾

벤담은 파놉티콘의 원리를 감시와 경제성을 연결해야 하는 거의 모든 시설에 적용하고자 했다. 이 점에서 그는 파놉티콘을 감옥 설계로만 생각하지 않았다. 병원, 병영, 학교, 공장 등의 근대의 모든 시설이 파놉티콘의 모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다.²⁹⁾ 이 파놉티콘을 통해 벤담은 “죄수들이 바른 행동을 하도록 교화를 보장하고, 지금까지 신체적·정신적 타락으로 오염된 건강과 청결, 질서, 근면을 확고하게 하며, 비용을 감소시키면서도 공공의 안전을”³⁰⁾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 벤담은 파놉티콘을 통해 18세기 말 유럽의 범죄자들이 가혹한 처형과 처벌을 벗어나 ‘노동의 생산성’을 위해 교화를 받게 될 수 있다고 믿었다. 파놉티콘에서 수감자들을 다 볼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감시자는 그들의 내면까지도 지배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수감자들은 감시자의 의도를 따르게 된다. 벤담의 파놉티콘 설계는 18세기 말 유럽의 장애인 감금 시설에도 해당하는 것이었다. 파놉티콘은 장애인들을 격리시켜 감시하고, 관리하기 좋은 감금 모델이기도 했다.

제러미 벤담의功利주의의 원칙의 따라 건축된 파놉티콘을 모형으로 한 근대의 모든 시설은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에서 감옥의 역사에 대한 주요한 분석 대상이 되고 있다. 미셸 푸코는 “근대의 모든 시설이 파놉티콘을 모형으로 한 것이라면, 결국 근대사회의 이상은 곧 감옥인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28) J. 벤담 저, 신건수 역, 『파놉티콘』(책세상, 2010), 19쪽.

29) “이 원리는 다행스럽게도 학교나 병영, 즉 한 사람이 다수를 감독하는 일을 맡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위의 책, 70쪽 참조.

30) 위의 책, 23쪽.

벤담과 다르게 푸코는 ‘이성’과 대비되는 ‘광기’의 개념을 추적함으로써 ‘이성’이 어떻게 사회적 억압과 기제로 작용하는지 규명한다. 푸코가 쓴 『광기의 역사』의 유명한 상징이 된 ‘바보들의 배’는 광인들을 태우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돌아다녔다.³¹⁾ 르네상스시대의 광인들은 도시에서 내쫓겨 상인이나 선원들에 이끌려 가다가 원래 살던 도시의 정화를 위해 내버려졌다. 17세기가 되자 도시에서 추방되어 어느 정도 자유로운 존재로 내팽개쳐졌던 광인들은 유치장에 갇히는 신세가 된다. 르네상스 시대에 광기는 일상적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한 부분으로 이해되었다. 17-18세기 고전주의 시대에 들어 광인들은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광기는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광기는 인간 이성에 정반대인 것으로, 또는 도덕적 틀을 위반하는 것으로 ‘철창’ 속에 갇히게 되었다. 이제 구치소에는 광인뿐만 아니라, 게으름과 나태로 도덕적 일탈을 한 사람들, 즉 가난한 사람, 실업자, 성범죄자, 종교적 신성모독 죄인 그리고 자유사상가까지 수감되었다. 18세기 후반에 가서야 광기는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질병으로 이해되었다. ‘질병환자’로 이해된 광인은 ‘구치소’에서 ‘해방’되었으나 내적으로 더욱 정교하고 엄격한 처벌 기제인 ‘정신 치료’를 받아야 했다. 정신 치료를 받으면서 그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기존 부르주아 사회의 엄격한 도덕 규칙을 따르도록 강제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처럼 푸코는 광기의 역사를 추적해감으로써 광기와 대비되는 이성주의의 ‘차별과 배제의 논리’를 역으로 드러냈다. 푸코의 광기의 역사에 대한 추적은 우리 사회의 장애 담론에 대해 많은 점을 시사해준다.³²⁾ 푸코가 밝혀준 것처럼 근현대에 들어서 장애는 질병으로

31) 푸코 저, 김부용 역, 『광기의 역사』(인간사랑, 1999) 참조.

32) 앙리 자크 스티케(Henri-Jaques Stiker)는 푸코의 분석에 힘입어 장애에 대한 계보학적 접근을 시도한다. 스티케는 자신의 책 *Corps infirmes et sociétés*에서 신체의 비정상성에 대한 담론을 통해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의식과 대응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으며, 장애를 둘러싼 사회적 차이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스티케의 이러한 작업에 자극을 받아 수잔 레이놀즈 휘테(Susan Reynolds Whyte)는 장애에 대한 문화 인류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수잔 레이놀즈 휘테·베네딕테 잉스타 저, 김도현 역, 앞의 책, 496-540쪽 참조). 그리고 푸코와 관련해 장애와 장애정책 문제를 다룬 책으로는 Shelly Tremain, *Foucault and the Government of Disability*(Corporealities: Discourses of Disability)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장애에 대해 철학적 성찰을 시도한 책은 크리스토퍼 랠스턴과 저스틴 호(Christopher Ralston and Justin Ho)가 편집한 *Philosophical Reflections on Disability*가 있다. 이 책은 4부로 나누어 i) 장애의 개념과 이론, ii) 장애와 삶의 질, 생명 윤리, iii) 장애와 관련된 사회적 정의, iv) 장애 경험에 대한 개인적 체험들을 다루고 있다.

이해되면서 인도주의적 처방에 따라 치유의 대상이 된다. 기독교적 자선과 인도주의적 가치가 고양되었던 고전주의 시대에 장애인들을 위해 비장애인들이 통제하고 운영하는 몇몇 자선 단체가 설립되었다. 예를 들어 1863년에 ‘영국맹교육촉진협회(the British and Foreign Association for Promoting the Education of the Blind)’가 설립되었다.³³⁾

푸코는 이성에 기초한 사회적 규범체계의 완성과 동시에 그 반대로 ‘광기’의 개념이 어떻게 ‘질병’으로 형성되고 유포되었는가를 계보학적 방법으로 추적함으로써 ‘장애’가 어떻게 사회에서 배제되고 억압되는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푸코의 논지에 따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지어 특별히 장애인을 차별하고 사회에서 배제한 것은 오히려 근현대에 들어서 발생한 일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장애의 고유한 차이를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평등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일까?

IV. 장애와 비장애의 이분법과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권리 박탈

노라 엘렌 그로스는 마서즈 비니어드 사람들의 청각 장애인들에 대한 문화인류학적인 연구를 수행했다. 그녀에 따르면, 이 섬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같은 종류의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했으며, 부를 축적하고 결혼도 하고 교육을 받았다. 이 섬에서 청각 장애인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이 섬사람들의 의식에 없었기 때문이다.³⁴⁾ 이것은 장애가 하나의 개인 능력의 결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공된 ‘사회적 가공구조물(a social construct)’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연구를 보면 장애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담론이 장애인들의 사회적 통합에서 얼마나 장애로 작용하는지 알 수 있다. 또한 푸코의 영향을 받아 마사이족의 장애에 대한 관찰을 담은 에우드 탈레의 문화인류학적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는 차이이지 결코 차별이 아니다. 마사이족 사람이 장애를 번역할 때 사용하는 용어는 올마이마

33) Colin Barnes 저, 윤삼호 역, 앞의 책, 31쪽.

34) Nora Ellen Groce 저, 박승희 역, 『마서즈 비니어드 사람들은 수화로 말한다』(한길사, 2003), 127-131쪽.

(olmaima)이다.

영어에서의 장애에 가장 근접해 있고, 영어를 읽고 쓸 줄 아는 마사이족 사람이 장애(disabled)를 번역할 때 사용하는 단 하나의 용어는 올마이마(지체장애를 뜻하는 용어단어 crippled에 가까움)이다. 글자 뜻 자체로 보자면, 올마이마는 짧은 다리를 지니고 있으며 걷는 동안 몸을 심하게 흔들리는 큰 갈색의 도마뱀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그 도마뱀은 어색하고 느리며 몸을 힘들게 걷는다. [...] 마사이족은 '장애'인이 된 사람이 그러한 상태로 인해 비난받아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것처럼 된 것이 그 사람의 바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어떠한 신체적 손상은 불운하거나 '나쁜'것으로 간주된다. [...] 잠정적으로, 우리는 마사이족의 문화 내에서 장애인으로 간주되는 사람이 표준으로 규정된 것에서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일탈한 사람이 아니며, 그보다는 일상적 과업에서 필요한 도움 때문에 타인들에게 신체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이라고 진술할 수 있을 듯하다.³⁵⁾

마사이족은 장애를 인지하지만, 그것은 들뢰즈가 말한 것처럼 '수평적 차이'이자 다양성의 하나로 이해한다.

나는 케냐의 목축민 마사이족 사이에서 장애가 사람들을 규정하는 하나의 기반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한 개인이 어떤 형태의 손상을 지녔다는 사실은 단지 그/그녀의 인격에 있어 한 측면일 뿐이며,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조건에 있어 어떠한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분명히 마사이족은 장애들을 인지하고 있으며, 그것들을 나쁘거나 불운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들은 그러한 차이를 명명하고 또한 구분하지만, 나는 이러한 명명과 구분이 차이를 지니거나 예외적인 것에 대한 수용, 그리고 두려움의 부재를 나타낸다고 주장한다.³⁶⁾

마사이족의 경우 장애는 손상과 손상을 입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로 구분되지만, 둘 사이의 차별과 어느 한쪽에 대한 배제는 없다. 마사이족은 장애를 차이로 인식하지만, 그것을 그 자체로 수용한다. 이 점은 서구 사회의 담론을 지배하였던 완전/불완전, 정상/비정상의 도식과는 다른 것이다. 그렇다면 장애의 고유한 차이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사회적 평등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일까? 들뢰즈나 푸코의 비판에서 드러나듯이, 플라톤 이래 장애에 대한 서구의 주류적 담론을 극복할 새로운 담론은 없는 것인가?

35) 에우드 탈테 저, 김도현 역, 앞의 책, 113-114쪽.

36) 위의 책, 136쪽.

V. 『장자』에 나타난 장애인의 모습

서구의 주류적·역사적·사회적 담론에서는 완전/비완전, 정상/비정상, 이성/미이성이라는 이원론적 경향이 강했다면, 유가나 도가 등 동양의 철학 담론은 그 내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도(道)’라는 커다란 원리에 기초한 전일적이고도 통합적인 사고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므로 ‘장애’에 대해 ‘차별과 배제’보다는 ‘통합적 사고’를 지향한다. 장자철학은 이 통합적 사고를 가장 잘 보여준다.

『장자』는 ‘도’의 통합적 원리 속에 선과 악, 완전과 불완전에 기초한 이원론적 인식을 배제하며, 따라서 차별과 배제라고 하는 담론이 등장하지 않는다. 『장자』에는 여타의 동서양 철학고전들과 달리 장애인들이 주인공으로 많이 등장한다. 『장자』에서는 장애인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장자가 담론에 장애인을 끌어들이는 것은 차별성 없는, 그리고 상대적 인식을 뛰어넘는 차원의 ‘도’를 언급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자』에는 장애에 대한 이분법적 시선과 사회적 차별을 넘어서는 논리가 숨어 있다.

『장자』에서 장애인이 등장하는 대표적인 부분은 「인간세(人間世)」편과 「덕충부(德充符)」편이다. 『장자』의 「인간세」편에 등장하는 지리소(支離疏)는 장애인이다. 지리소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병역(兵役)은 물론 각종 부역(賦役)도 면제받았고 나라에서 구호양곡도 받아서 마음 편하게 장수를 누렸다.

지리소라는 사람이 있는데, 턱이 배꼽에 박혔고, 어깨가 정수리보다 높았다. 상투는 하늘로 치솟아 있고, 오장은 위쪽에 붙어 있고, 두 다리는 옆구리에 와 있었다. 그러나 바느질을 하고 빨래를 하여 먹고살기에 넉넉하였다. 키질을 하여 쌀을 불려 열 식구를 먹이기에 충분하였다. 위에서 병사들을 징집하더라도 지리는 팔을 휘저으며 그곳을 노닐었다. 큰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지리는 언제나 병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끌려가지 않았다. 위에서 불구자들에게 곡식을 나누어줄 적에는 삼종의 곡식과 열 단의 땀 나무를 받았다. 이렇게 그는 형체가 불완전한 사람이면서도 자신을 충분히 보양할 수 있고, 그가 천년을 누리며 살 수 있었다. 그러니 하물며 그의 턱이 불완전한 사람이야 어떠하겠는가!³⁷⁾

37) 『莊子』, 「人間世」. “支離疏者, 頤隱於臍, 肩高於頂, 會撮指天, 五管在上, 兩髀爲脇. 挫鍼治癰, 足以闕口. 鼓筴播精, 足以食十人. 上徵武士, 則支離攘臂而遊於其間. 上有大役,

한 걸음 더 나아가 장자는 「덕충부」 편에서 장애를 입은 사람을 본격적으로 등장시켜 장애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을 비판한다. 덕충부는 덕이 사람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표출된다는 뜻이다. 덕충부에 등장하는 한 발을 잘린 왕태(王駘), 외발 신도가(申徒嘉), 한 발을 잘린 숙산(叔山), 너무나 못생긴 애태타(袁鮒它) 등은 모두 장애인이다. 그러나 그들은 걸모양은 불완전한 불구이지만 안으로 완전한 덕을 갖춘 사람들이다. 장자는 이들을 통해서 이것은 걸모양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려는 세상 사람들의 상식을 비웃는다. 장자가 이렇게 장애인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유가에서 말하는 완벽한 이상적 인간형인 ‘성인’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다. 유가에서는 항상 완전한 인간형인 ‘성인’을 내세운다. 그러나 장자는 유가에서 말하는 완전한 인간형인 성인을 내세우면 큰 도적이 나온다고 주장한다.³⁸⁾ 다시 말해, 성인이라는 완전을 내세우면 비완전이 생기고, 그에 따라 도의 통합적 원리가 왜곡되며, 또한 성인이라는 인간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적 사회적 질서가 생긴다고 주장한다. 장자는 역설적으로 「덕충부」에서 한 발을 잘린 불구인 왕태를 성인으로 등장시켜 다음과 같이 말을 한다.

노나라에 죄를 지어 발을 잘린 왕태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를 따라 배우는 사람들의 수가 공자의 제자 수와 비슷하였다. 상계(常季)가 공자에게 물었다.

“왕태는 죄를 지어 발이 잘려 절름발이가 된 사람입니다. 그를 따라 공부하는 사람들의 수가 선생님의 제자 수와 함께 노나라 인구를 반반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서서 가르치지도 않고 앉아서 논하지도 않았습니니다. 텅 빈 머리로 간 사람이 머리가 꼭 차서 돌아옵니다. 정말 말로 하지 않는 가르침이라는 것이 있어서 형식은 없어도 마음을 채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그 분은 성인입니다. 나는 미루다가 아직도 찾아가 뵙지는 못했다. 나도 장차 그 분을 스승으로 모시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하물며 만나 못한 사람이야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찌 노나라 사람들뿐인가? 나는 천하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그를 따라 배우려 하고 있다.”

상계가 말하였다.

“그는 죄를 지어 다리가 잘린 절름발이인데도, 선생님을 앞서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마음을 어떻게 쓰는 겁니까?”

則支離以有常疾，不受功。上與病者粟，則受三鍾，與十束薪。夫支離其形者，猶足以養其身，終其天年，又況支離其德者乎!”

38) 『莊子』, 陳鼓應 註譯, 「肱篋」, “聖人生而大盜起.” 282쪽.

공자가 말하였다.

“죽고 사는 것도 큰 문제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를 변화시킬 수 없다. 비록 하늘이 땅이 무너지고 엇어진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분은 망하지 않는다. 그는 의지할 것 없는 참된 경지를 잘 알고 있어서 밖의 사물에 의해 변화를 받지 않는다. 밖의 사물의 변화를 따르면서 그의 근본을 지키는 분이다.”³⁹⁾

이처럼 장자에게 장애인도 차별의 대상이 아니다. 장자는 우리가 외모나 손상 입은 신체를 가진 사람들을 보고 선입견을 갖는 것을 비판한다. 장자에게 장애인은 유가에서 강조하는 완전한 인간형인 성인에 못지않은 인물로 내세워진다.⁴⁰⁾

장자는 성인이 아니라 왜 장애인을 성인으로 그리고 인간의 완전형으로 내세웠는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자의 인식론적 입장을 살펴보아야 한다.

VI. 장애와 비장애의 차별과 배제의 인식론을 넘어서

완전/불완전, 정상/비정상이라고 하는 장애에 대한 서구의 주류적 이분법적 담론은 들뢰즈나 푸코의 비판에서 볼 수 있듯이, 서구 철학 내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 아울러 이분법적 사고에 기초한 사회적 담론도 문제시되며, 그러한 인식을 극복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인식의 극복과 관련하여 장자의 인식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분법적 사고를 거부하는 장자의 인식론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장자는 인식론적으로 정상이라는 개념은 완전한 개념이 아니며,

39) 『莊子』, 「德充符」. “魯有兀者王駘, 從之遊者, 與仲尼相若, 常季問於仲尼曰:「王駘, 兀者也, 從之遊者, 與夫子中分魯. 立不教, 坐不議, 虛而往, 實而歸. 固有不言之教, 無形而心成者邪? 是何人也?」 仲尼曰:「夫子, 聖人也, 丘也直後而未往耳. 丘將以爲師, 而況不若丘者乎! 奚假魯國! 丘將引天下而與從之.」 常季曰:「彼兀者也, 而王先生, 其與庸亦遠矣. 若然者, 其用心也獨若之何?」 仲尼曰:「死生亦大矣, 而不得與之變, 雖天地覆壓, 亦將不與之遺. 審乎無假而不與物遷, 命物之化而守其宗也.」”

40) 유교가 주장하는 성인은 장애와 별로 관련이 없다. 공자는 정신적 장애라 볼 수 있는 초나라 미치광이 접여를 존중해 만나 대화를 듣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준다(『論語』, 「微子」 참조). 물론 장자가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공자를 내세워 만든 이야기겠지만, 공자가 형벌로 절름발이 왕태를 성인으로 보고, 스승으로 삼고자 했다는 것은 유교의 성인이 신체적 기능적 장애보다 도덕에 기준을 두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한다.

그것은 상대적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장자에 따르면, 완전/불완전, 정상/비정상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일 뿐이며 한계가 있는 것이다. 두 개념은 심지어 서로 의존적이다. ‘완전’은 ‘불완전’이 없으면 생겨날 수 없는 개념이고, ‘정상’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완전/불완전, 정상/비정상의 인식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장자가 주장하는 도의 입장에서 볼 때, 정상/비정상 모두 한계를 지닌 것이며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장자는 이러한 관점을 ‘도추’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물건은 저것이 되지 않는 것이 없고, 또 이것이 되지 않는 것도 없다. 저것은 저것의 입장만으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이것을 통하여 알아보면 곧 저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저것은 이것에서 나오고, 이것 역시 저것에 말미암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저것과 이것이 함께 생겨난다는 설인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삶이 있으면 죽음도 있고 죽음이 있으면 삶도 있다. 가(可)한 것이 있으면 가하지 않은 것이 있고, 가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가한 것이 있다. 옳음으로 말미암아 그릇됨이 있고, 그릇됨으로 말미암아 옳음이 있다. 그래서 성인은 이런 것에 의거하지 않고 그런 것을 자연에 비추어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옳음에 근거를 둔 것이다. 이것은 또 저것이 되고 저것은 또 이것이 된다. 저것도 한 가지 시비가 되고, 이것도 한 가지 시비가 된다. 그러면 과연 저것과 이것이 있는 것인가? 과연 저것과 이것이 없는 것인가? 저것과 이것이란 상대적인 개념이 없는 것, 그것을 일컬어 ‘도추라 한다. 도추가 가장 알맞은 가운데에 들어맞아야만 비로소 무궁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옳음도 역시 무궁한 변화 중의 하나이고, 그름도 역시 무궁한 변화 중의 하나인 것이다. 그러므로 ‘밝은 지혜로써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 것이다.⁴¹⁾

둘째, 장자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장애를 실용적 태도와 관련해 보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실용이나 효용이라는 관점은 순전히 주관적인 관점이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쓰임새는 달리 나올 수 있다. 장자에는 무용의 용, 즉 “쓸모없음의 쓸모 있음”을 주장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온다.

혜자가 장자에게 말했다. “나에게는 거대한 나무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개똥나무

41) 『莊子』, 「齊物論」. “物无非彼, 物无非是. 自彼則不見, 自是則知之. 故曰彼出於是, 是亦因彼. 彼是方生之說也, 雖然, 方生方死, 方死方生, 方可方不可. 因是因非, 因非因是. 是以聖人不由, 而照之於天, 亦因是也. 是亦彼也, 彼亦是也. 彼亦一是非, 此亦一是非. 果且有彼是乎哉? 果且无彼是乎哉? 彼是莫得其偶, 謂之道樞. 樞始得其環中, 以應无窮. 是亦一无窮, 非亦一无窮也. 故曰莫若以明.”

라 부른다네. 그 기둥에는 흙이 많이 붙어 있어서 먹줄을 칠 수가 없고, 그 작은 가지들은 뒤틀려 있어서 자를 댈 수가 없네. 길가에 서 있지만, 목수들도 거들떠보지 않네. 지금 그대의 말도 크기만 했지 쓸 곳은 없으니 모든 사람들이 상대도 안 할 것이네.” 장자가 말했다. “그대 홀로 살랭이를 보지 못했는가? 몸을 낮추고 엎드려서 튀어나올 먹이를 노리지만, 동쪽 서쪽으로 뛰어다니며 높고 낮음을 꺼리지 않다가 밧이나 그물에 걸려 죽고 만다네. 지금 저 들소는 그 크기가 하늘에 드리운 구름과 같다네. 이 높은 큰 일은 할 수 있지만 쥐는 잡지 못하네. 지금 그대는 큰 나무를 가지고 그것이 쓸데없다고 근심하고 있네. 어째서 무하유지향의 광막한 들에다 그것을 심어놓고, 하는 일 없이 그 걸을 왔다 갔다 하거나 그 아래 어슬렁거리다가 드러누워 낮잠을 자지 않는가? 그 나무는 도끼에 일찍 찍히지 않을 것이고, 아무것도 그것을 해치지 않을 것이네. 쓸데가 없다고 하여 어찌 마음의 괴로움이 된단 말인가?”⁴²⁾

장자의 주장대로 효용이나 쓸모 있음은 모두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한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러한 장자의 주장은 유용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인식도 달라진다고 본다. 공리주의가 생각했던 유용성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유용성이다. 그러나 그 유용성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면, 그러한 기준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차이를 만들고, 그 차이를 차별로 해서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사회적 가공물에 불과한 것이다. 『장자』에 등장하는 장애를 가진 인물들은 장애를 갖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또 다른 능력을 보여준다.

셋째, 장자는 인식의 차별과 다양성을 인정하라고 한다. 인식의 차별과 다양성은 ‘장애’를 수평적 차원에서 ‘차이’로 인정하게 해준다. 『장자』는 완전과 불완전, 미와 추, 장애와 비장애가 가진 이분법적 사고가 우리의 시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장애로 인한 차별, 무시와 배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자가 볼 때 장애는 차이가 있을 뿐, 근본은 모두 하나이다.

이를 위하여 종을 치는 막대기와 기둥을, 문둥이와 서시를, 진귀한 것과 괴상한 것을 예를 들어도, 도에 있어서는 모두가 통하여 한 가지 것이 된다.⁴³⁾

42) 『莊子』, 「逍遙遊」. 惠子謂莊子曰:「吾有大樹, 人謂之樗. 其大本擁腫而不中繩墨, 其小枝卷曲而不中規矩, 立之塗, 匠者不顧. 今子之言, 大而無用, 衆所同去也.」莊子曰:「子獨不見狸狌乎? 卑身而伏, 以候敖者, 東西跳梁, 不避高下, 中於機辟, 死於罔罟. 今夫斄牛, 其大若垂天之雲. 此能爲大矣, 而不能執鼠. 今子有大樹, 患其無用, 何不樹之於無何有之鄉, 廣莫之野, 彷徨乎無爲其側, 逍遙乎寢臥其下. 不夭斤斧, 物無害者, 無所可用, 安所困苦哉!」.

43) 『莊子』, 「齊物論」. “故爲是舉莛與楹, 厲與西施, 恢恠憭怪, 道通爲一.”

『장자』에서 볼 수 있는 이분법적 사고의 극복과 소수와 다양성의 차이에 대한 인정은 오래된 ‘사회적 선입견과 편견’에 기초한 장애에 대한 시선을 극복할 수 있는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해준다. 또한 장자는 스티케가 지적한 것처럼 장애를 ‘마치 -인 것처럼의 문화’로 정의하지 않으면서도 장애가 갖는 차이와 고유성을 드러낼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장자의 인식론적 입장은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의 차별적 시선과 관련해서 많은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VII. 맺음말

이 글에서 우리는 장애에 대한 역사적·사회적 담론을 추적해보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담론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고대 그리스 로마 문명으로부터 시작된 근현대 서구의 담론에서는 완전/불완전, 정상/비정상이라는 도식이 지배해왔다. 철학적으로 이분법적 시선은 주로 차별과 배제의 논리로 쓰여져왔다. 이러한 도식 속에서 장애의 문제도 다루었는데, 장애는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사회적 억압과 차별 또는 배제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 점은 푸코의 연구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었다. 장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과 차별적 담론은 노라 엘렌 그로스가 지적한 것처럼 사회적 가공물이자 사회적 담론의 결과이다. 따라서 장애는 신체적·정신적 손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많은 경우 장애는 손상과 연결된 사회적 억압이다. 따라서 장애에 대한 담론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는 것이다.

장자가 인식의 상대성을 통해 보여준 것처럼 장애와 비장애, 완전과 불완전에 대한 이분법적 시선과 그것에 기초한 사회적 편견을 상대적이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장애를 차별이 아닌 상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 자체를 사회적으로 포용할 때 장애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수자이자 차별받는 장애인들의 권리 회복과 미래 한국 사회 시민 공동체의 시민권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도현,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 메이데이, 2007.
- _____, 『장애학 함께 읽기』. 그린비, 2009.
- 박수경, 『장애의 사회적 의미와 사회통합』. 집문당, 2008.
- 유동철, 『인권 관점에서 보는 장애인 복지』. 집문당, 2009.
- 이동희,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철학이야기』 근현대편. 휴머니스트, 2011.
- 정창권, 『역사 속 장애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글항아리, 2011.
- 陳鼓應 譯註, 『莊子今註今譯』. 臺灣商務印書館, 1981.
- Barnes, Colin, “억압의 유산: 서구 문화에서 장애의 역사”: Len Barton & M. Oliver, *Disability Studies: Past, Present and Future*. Leeds University Press, 1997(윤삼호 역, 『장애학: 과거 · 현재 · 미래』. 대구장애인연맹, 2006).
- Bentham, J.,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London: The Athlone Press, 1970a.
- Bentham, J., *Panopticon*. Paris, 1970b(신건수 역, 『파놉티콘』. 책세상, 2010).
- Charton, James I., *Nothing about us without us*. University of California, 1998(전지혜, 『우리 없이 우리에게 대한 것은 없다』. 울력, 2009).
- Deleuze, G., *Différence et répétition*. Presses Univeritaires de France, 1968(김상환 역, 『차이와 반복』, 민음사, 2004).
- Foucault, Michel., *Histoire de la folie à l'âge classique*. Paris, Gallimard, 1972(김부용 역, 『광기의 역사』. 인간사랑, 1999).
- _____, *Histoire de la sexualité*. vol. 1: La volonté de savoir, Paris, Gallimard, 1976(이규현 역, 『성의 역사 1』. 나남, 1990).
- _____, *Histoire de la sexualité*. vol. 2: L'usage des plaisirs, Paris, Gallimard, 1984a(문경자 · 신은영 역, 『성의 역사 2』. 나남, 1990).
- _____, *Histoire de la sexualité*. vol. 3: Le souci de soi, Paris, Gallimard, 1984b(이혜숙 · 이영목 역, 『성의 역사 3』. 나남, 1990).
- Groce, Nora Ellen, *Everyone here spoke sign langua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5(박승희 역, 『마서즈 비니어드 사람들은 수화로 말한다』. 한길사, 2003).
- Jollien, Alexandre, *Éloge de la faiblesse*. Le Cerf, 1999(이충민 역, 『약자의 찬가』. 새물결, 2005).
- Kant, Immanuel, *Beantwortung der Frage: Was ist Aufklärung?* In: *Berlinische Monatsschrift*, 1784, H. 12, pp. 481-494.

- Platon, *Politeia*, J. Burnet(ed.), Platonis Opera, 1902(박종현 역, 『국가』. 서광사, 1997).
- Plutarch, *The Lives of the Noble Grecians and Romans*. Dryden, 1952(김병철 역, 『플루타르크 영웅전』. 범우사, 1999).
- Ralston, D. Christopher and Justin Ho, *Philosophical Reflections on Disability*. Springer, 2011.
- Stiker, Henri-Jaques, *Corps infirmes et sociétés*, Paris: Aubier Montaigne. 1982.
- Talle, Aud., “아이는 아이일 뿐이다”. Ingstad, Benedicte · Whyte, Susan Reynolds(ed.), *Disability and Culture*. The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1995(김도현 역, 『우리가 아는 장애는 없다』. 그린비, 2011).
- Thomas, K., *The Place of Laughter in Tudor and Stuart England*. Times Literary Supplement 21 January, pp. 77-81, 1977.
- Tremain, Shelly(ed.), *Foucault and the Government of Disability*(Corporealities: Discourses of Disability).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5.
- Wilkinson, Richard G., *The Impact of Inequality*. Routledge, 2005(김홍수 역, 『평등해야 건강하다: 불평등은 어떻게 사회를 병들게 하는가』. 후마니타스, 2008).

국 문 요 약

이 글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의 원인이 장애 그 자체보다는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과 그러한 인식에 기반한 사회적 담론에 있다고 본다.

근본적으로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은 노라 엘렌 그로스(Nora Ellen Groce)가 말한 것처럼 '사회적 가공구조물(a social construct)'일 수 있다. 손상(impairment)이 있는 사람들을 장애인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사회이다. 이런 결과를 낳은 배경에는 다수와 소수자, 정상인과 비정상인, 완전과 불완전이라고 하는 장애에 대한 역사적·사회적으로 뿌리 깊은 선입견과 편견이 자리 잡고 있다. 장애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그것에 기반한 사회적 담론은 장애의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장애에 대한 그릇된 사회적 인식을 계속해서 재생산해낸다.

이 글에서는 고대 그리스 로마 문명에서부터 근현대 서구에 이르기까지 장애에 대한 역사적·사회적 담론을 추적하여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의 이분법적인 시선과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배제와 차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밝히고 있다. 이 점에서 들뢰즈의 플라톤 비판과 푸코의 근대적 이성에 대한 비판은 완전과 불완전, 정상과 비정상이라고 하는 사회의 이분법적 시선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것에 기초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가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장애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완전과 불완전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와 담론의 극복이 요구된다. 이 점에서 이 글은 완전과 불완전, 정상과 비정상이 서로 상대적이며,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장자를 주목한다. 장자는 꼽추 지리소(支離疏), 한 발을 잘린 왕태(王骀), 외발 신도가(申徒嘉), 한 발을 잘린 숙산(叔山), 너무나 못생긴 애태타(哀綸它) 등 장애인들을 등장시키고 그들을 이분법적 시선이 아닌 '도추'의 입장에서 조명하여 그들이 그 자체로 완전한 인간임을 주장한다. 장자의 주장은 우리가 인식을 바꿀 때 대상도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노라 엘렌 그로스가 마서즈 비니어드 사람들의 청각 장애인들에 대해 수행한 문화인류학적인 연구는 장자의 입장을 뒷받침해준다. 섬사람들이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사회적 인식에 그러한 구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장애를 완전정상과 비정상이라는 이분법적 시선이 아니라, 장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리고 노라 엔렌 그로스가 수행한 연구에서 입증된 것처럼 장애 그 자체를 사회적으로 포용할 때 장애 문제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투고일 2014. 9. 24.

심사일 2014. 11. 7.

게재 확정일 2014. 11. 26.

주제어(keyword) 장애(disability), 플라톤(Plato), 들뢰즈(Deleuze), 푸코(Foucault), 장자(Chuang-tzu), 이분법적 시선(a dichotomous way of thinking), 장애에 대한 사회적 담론(social discourse of disability), 완전/불완전, 정상/비정상(perfection and imperfection, normal and abnormal), 사회적 가공구조물(a social construct)

Abstracts

Overcoming Dichotomous Views on Disability through Social Discourse

Rhie, Dong-hie

This paper deals with the social discourse on disability based on dichotomous views and tries to show a new way of thinking. It is generally understood that the disability is the cause of inequality and discrimination of the disabled people. But inequality and discrimination of the disabled people arise not out of the disability itself, but it is connected with social consciousness.

This Paper is to trace back to the civilizations of ancient Greece and Rome, middle age and modern western society in order to disclose that the social discourse of disability based on dichotomous views was the cause of inequality and discrimination of the disabled people. If we look back at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since Plato, we can find It that dichotomous views exert strongly its influence on the mainstream of western philosophy. As G. Deleuze and M. Foucault criticized sharply, dichotomous views that divided perfection and imperfection, equality and inequality, normal and abnormal could be easily connected with conceptions of discrimination. On a basis of this dichotomous views, social prejudice of disability was formed and it permeated through all society. As a result, people take it for granted that disability is discriminated and excluded from society.

As Nora Ellen Groce says, disability is a social construct. The main cause of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of disability is not connected with disability itself, but social prejudice based on dichotomous views. To overcome discrimination of disability, to change social prejudice of disability, this paper referred to ancient chinese Philosopher Chuang-tzu who criticised the dichotomous ways of thinking and views. He showed whole dimension of Dao. In it we find a new way of thinking and view on disability.